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57016

2012年 2月
教育學碩士(日本語教育)學位論文

韓日 受動表現의 対照分析

- 의식구조에 나타난 수동표현을 중심으로 -

朝鮮大學校 教育大學院

日本語教育專攻

張　　美　　華

2012年2月 教育學碩士學位論文

韓日受動表現의対照分析

張美華

韓日受動表現의 対照分析

- 의식구조에 나타난 수동표현을 중심으로 -

2012年 **2**月

朝鮮大學校 敎育大學院

日本語敎育專攻

張 美 華

韓日受動表現의 対照分析

- 의식구조에 나타난 수동표현을 중심으로 -

指導教授　朴　青　國

이 論文을 教育學碩士(日本語教育專攻)學位
請求論文으로 提出합니다.

2012年　**2**月

朝鮮大學校 教育大學院

日本語教育專攻

張　美　華

張美華의敎育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朝鮮大學校　敎　授　朴　青　國　印

審査委員　　朝鮮大學校　敎　授　丁　意　祥　印

審査委員　　朝鮮大學校　敎　授　金　仁　炫　印

2011年　**2**月　　日

朝鮮大學校 敎育大學院

A study about passive sentences in japanese and korean languages.

- focusing on structure of consciousness that appears in passive sentences-

Chang mi-hwa

Advisor: Professor Park chung-kuk

Japanes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oseon University

There are lots of study about Korean and Japanese passive voices and they have some common factors. First, in terms of syntax, when the subject of active voice is changed, the postposition is also changed. And when an active voice is turned into a passive voice, the form of the verb in the sentence is changed so that it can express passive voice. In order for Korean language to indicate a passive voice, the verb in the sentence can be changed like these: passive suffix such as '-i, -hi, -ri and -ki' is added to the verb. And In the case of Japanese passive voice, auxiliary verb, 'reru' or 'rareru', is connected to the conjugative ending of the verb. In korean, When the active voice is exchanged with the passive voice, according to change of verb, also josa is changed: '-ni, -kara, -ni yotte, -to'. This thesis aims at finding out what difference with korean and japanese. The active voice, which is used for most Korean sentences, emphasizes the action itself rather than the subject of the action. On the contrary, Japanese passive voice focuses on the object of the action, which is usually human beings. Although Korean and Japanese sentences have the same meaning, they use different voices, which indicates the different points of view of the speakers. This thesis tried to find out why Korean and Japanese speakers have different points of view. To this end, the thesis tried to understand the difference of the mindset caused by the different cultures, which are closely related with the language.

目　　次

제1장 序 論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 3

제2장 本 論 ····· 5

제1절 한일 양국어 수동문의 특징 ····· 5

1. 한국어 수동문 ····· 6

2. 일본어 수동문 ····· 12

제2절 한일 양국어 수동문의 비교 ····· 18

1. 형태적 특징 ····· 18

2. 통어적 및 의미적 특징 ····· 19

제3절 동작주와 조사와의 기능 ····· 22

1. 동작주의 조사「に」 ····· 24

2. 동작주의 조사「から」 ····· 24
3. 동작주의 조사「によって」 ····· 26
4. 동작주의 조사 「で」 ····· 27

제4절 한일 양국어 수동문의 대응관계 ····· 28
1. 일본어 수동문에 대응하는 한국어 표현 ····· 29
2. 한일 번역소설의 수동표현 ····· 32

제5절 수동표현을 통해 본 한일 양국의 의식구조 ····· 33
1. 주체의식과 대상의식 ····· 33
2. 남성문화와 여성문화 ····· 34

제3장 結 論 ····· 38

참고문헌 ····· 41

表 目 次

[표1] 접미사 피동 어간말음의 음운특성 ····· 8
[표2] 수동문의 형식상의 대조 ····· 15
[표3] 수동문의 의미상의 대조 ····· 17
[표4] 일본어 소설의 동작주와 조사 사용률 (%) ····· 23
[표5] 근대한국어 번역소설에서 수동의 형식별 출현빈도 ····· 29
[표6] 한일 한자동사의 자타동사간 同異 1 ····· 30
[표7] 한일 한자동사의 자타동사간 同異 2 ····· 31

제1장 序 論

제1절 연구의 목적

언어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그 형태는 시대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그 존재가 항상 변화하고 있는 이상, 과정을 무시하고서는 본질의 체계적인 규명이 불가능 하다. 언어의 본질을 규명하고자 할 때는 통시적 시점에서 그 변화과정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본어의 경우 근대 이후 어휘, 문법, 표현법 등 여러 면에서 다양한 변화가 생겨왔다. 수동표현 역시 근대에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서술 방식의 변화에 함께 물질명사의 주체화, 비정 수동표현의 다양화 등 눈에 띄는 여러 변화를 볼 수 있다.

한국어의 경우도 근대 이전에는 직접적이고 명료한 표현법이 많이 쓰였기 때문에 수동표현은 그다지 많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다양화되게 더욱 많이 쓰이는 경향을 띤다. 한국어에 있어서 수동표현의 다양화는 일반적으로 일본어의 영향을 받았다고 의견이 많은데, 일본어의 수동표현도 근대이후 서구적 표현의 영향으로 현저하게 발달되었다고 지적되고 있다. 한국어 수동표현에 있어서 일본어의 영향도 근대 이우에 일본어가 획득한 서구적 표현의 간접적인 영향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있다.

이렇듯 한일 양국어는 문법구조와 표현형식이 동질성을 띤 것으로 주지되어 왔으나 근래에 접어들어 대조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그 공통점과 상이점이 다양하게 밝혀 지고 있다.

한국어의 경우 근대이전은 직접적이고 명료한 표현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수동표현이 비교적 적었으나, 최근 들어 다양하게 사용되는 경향을 띠고 있다.

본고에서는 현대 한일 양국어의 수동문에 대한 비교연구, 특히 형태론적, 의미론적,

구조분석을 중심으로 대조해 보기로 하겠다.

수동표현에 관한 연구는 한일 양국에 있어 여러 해 동안 여러 학자들에 의해 꾸준히 연구되어 지고 있는데, 종래의 연구는, 데라무라 히데오(寺村秀夫,1982)의 직접수동과 간접수동 두 가지로 수동문을 분류하는 2분류법과, 두 가지 형태의 중간적 존재로 볼 수 있는 소유자수동을 하나의 하위 유형으로 설정하여 직접수동과 간접수동 사이에 넣는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하는 3분류법이 있다.

한국어의 수동표현에 대한 연구는 일찍이 행해져 왔는데, 이를 살펴 보자면 형태적인 관점에서 분류할 때 '이, 히, 리, 기' 와 같은 수동접미사가 연결되어 형성되는 전형적인 구조의 수동문만을 인정하는 학설과 수동접미사, 그 밖의 수동표현인 보조동사 '지다'에 의한 수동형과 '되다, 받다, 당하다' 까지 수동문으로 인정하는 학설로 나누어 진다. '이, 히, 리, 기' 같은 수동접미사가 연결되어 형성되는 구조의 수동문만을 인정한 학자로는 이익섭(1983), 임홍빈(1977), 우인혜(1997) 등이 있으며, 보조동사 '지다'에 의한 수동형과 '되다, 받다, 당하다' 까지 수동문으로 인정하는 학자로는 최현배(1929), 성광수(1976) 등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일 수동문에 관한 선행연구를 근거하여 양국어 수동문의 특징 및 유사점, 상이점에 대해 살펴보고 또 이러한 유사점과 상이점이 나타나게 된 배경을 한일 양국인의 의식구조를 통해 고찰해 보도록 한다.

또한 수동표현에 있어서 중요한 동작주(動作主)와 조사의 관계를 예문을 통해 알아보고, 조사의 변화에 따른 술어동사의 형태 변화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 본 후 하나의 조사가 아닌 다른 조사로 대치될 수 있는 경우와 다른 조사로 대치되었을 때의 의미상, 형태상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지 한일 양국어의 유사점과 상이점을 고찰해 본다.

지금까지의 한일 수동문의 대조 연구를 보면 수동문을 형식별로 직접 수동문, 간접 수동문으로 분류하여 각각 어떤 조건으로 성립되어 지는가, 혹은 두 수동문의 비교 분석을 통한 본질적인 성격과 특성을 규명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이렇듯 종래의 한

일 양국어 수동표현의 연구는 언어관계에 있어서의 대조 분석만 이루어 졌으며, 그 차이가 생겨나는 배경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일본어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수동표현과 그에 대응하는 한국어 수동표현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밝히고, 양국의 국민들이 가진 의식구조가 한일 양국어에 각각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연구해 보고자 한다.

한국어 수동문의 기술방식에 관해서는 피동(被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한일 양국어의 대조분석 이라는 관점에서 수동(受動)이라는 표현을 쓰도록 한다.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수동문의 개념은 문장에서 동작을 받는 즉 외부의 어떠한 사상으로부터 작용, 형향을 받는 의미적인 조건을 가진다. 또 동작이나 작용, 형향을 받는 수동자(受動者)의 입장에서 표현되는 방향성을 내포 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일반적인 수동문의 개념을 바탕으로 한일 수동문의 술어 형태, 동사와의 관계, 조사와의 관계를 대조분석 기술하고자 한다.

형태의 대조분석에는 일본어 「れる、られる」가 동사와 성립되는 관계를 밝히고, 이 표현에 대응하는 한국어 표현 「이/ 히/ 리/ 기」에 의한 수동표현의 음운적 제약과 그 특성을 규명한다.

또, 능동문이 수동문 전환될 때 술어동사의 형태 변화에 따라 격(格)의 이동이 일어나고 이에 따라 조사도 바뀌게 된다. 주어가 조사 「に, によって, から, で」와 연결되어 동사와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그 기능에 대해 규명하며 한일 양국어의 조사 대응관계를 비교 검토 한다.

그리고 일본어 수동 표현 중 피해 수동이 가지는 의미를 일본 국민의 근간에 흐르는 의식구조를 중심으로 분석해 본다. 문장의 주어나 소유물에 화자의 시점을 맞춰 주관

적으로 상황을 서술하는 문장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은 일본어, 동작주의 행위나 상태, 작용 등에 시점을 맞춰 객관적으로 상황을 서술하는 문장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은 한국어를 대조 분석 하고, 양국 언어가 이러한 특징을 가지게 된 배경과 그 발상에 대하여 문화적 관점에서 규명한다.

이러한 분석, 고찰을 통하여 한일 양국 언어의 본질적 대조에 다소나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이 본고의 목표다.

제2장 本 論

제1절 한일 양국어 수동문의 특징

수동표현은 한일 양국어 모두 「외부로부터 동작을 받는 것을 나타낸다」(『일본어교육사전』1982:202)로 정의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 수동표현은 주격을 축으로 한 격의 변경으로, 새로운 주격이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는 다는 공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단, 일본어의 경우 동사에 조동사 「(ら) れる」를 부가하면 수동표현이 되기 때문에, 수동표현의 범위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에 반해, 한국어는 수동표현의 형태가 다양하여, 이에 대한 정의나 범위에 관한 문제가 빈번하게 의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동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분류가 행해지고 있다.

1. 직접적인 이해(利害)를 나타내는 것.

어떤 동작의 영향력이 본래 어떤 유정물에 향할 경우, 해당 유정물을 나타내는 명사를 주어로 하는 표현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이를 다시 주어와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의 관계에 따라 다음 3가지로 하위 분류하고 있다.

1-1) 주어가 동작의 직접적인 대상인 경우

(1)皆（から、に）愛される。

1-2) 주어의 소유물, 시체 일부 등이 타동적인 동작의 영향을 받는 경우

(2)泥棒に財布を取られる。

1-3) 주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의 동작이 해당 유생명사에 원래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것인 경우

(3) 親が子に死なれる。

2. 간접적인 이해(利害)를 나타내는 것

이것은 어떤 동작의 영향력이 원래 어떤 유생명사에 미치지 않는 경우, 그 동작의 발현을 해당 유생명사가 간접적인 이해로 인식하여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 한국어 수동문

가. 수동문의 정의 및 분류

일본어의 수동표현은 조동사 「れる、れれる」로 한정된 단일 문법적 형태지만, 한국어의 수동표현은 동사의 수동형 및 수동적 의미를 가진 어휘 구문까지도 포함하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최현배(1989)는 피동을 "남의 힘을 입어 되는 움직임" 이라 정의하고 이해피동, 가능피동, 자연적피동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이 중 피해수동이 가장 순수하고 진정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1] 또한 피동사에 대해 "스스로 제힘으로 그 움직임을 하지 아니하고, 남의 힘을 입어서. 그 움직임을 하게 되는 것을 나타낸다" 라고 정의 하였다.

한국어에서는 '태'[2](態)의 한 가지 개념으로 수동이라는 용어 보다는 피동이라는 문법적인 용어를 쓰고 있다.

『朝鮮語大辞典』(1986)에는 일본어의 수동형에 해당하는 한국어의 피동형에 대해 아래와 같이 기술되어 있다.

---

1) 최현배(1989) 『우리말본』정음문화사. p.422

2)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에 주어가 어떻게 관여하는 가를 나타낸 문법형식. 주어가 동작의 주체면 능동태, 객체면 수동태가 된다.

1. 고유어 동사의 어간에 /이/히/리/기/ 의 피동보조 어간을 붙인다.

먹다 → 먹히다

쓰다 → 쓰이다

그리고 /이/히/리/기/의 접속 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히/는 [잡히다, 먹히다] 와 같이 어간말음(語幹末音)이 폐쇄음(閉鎖音인) 경우에 붙는다.

② /리/는 [보이다, 덮이다] 와 같이 어간말음(語幹末音)이 모음(母音), 유기폐쇄음(有気閉鎖音)인 경우에 붙는다.

③ /리/는 [열리다, 들리다] 와 같이 어간말음(語幹末音)이 [ㄹ] 인 경우에 붙는다.

④ /기/는 [인기다, 감기다] 와 같이 어간말음 (語幹末音)이 [ㅁ,ㄴ] 인 경우에 붙는다.

그런데 여기에는 [쫓다 → 쫓기다] 와 같은 예외도 있다.

이익섭과 임홍빈(1983)은 능동태와 수동태에 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능동태와 수동태는 똑같은 일을 말하는 두 가지 다른 방법으로 이해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수동은 능동의 주어가 불분명 하거나, 쉽게 기술될 수 없을 때, 능동 주어를 특별히 내세우려 하지 않을 때, 능동 주어에 대해서보다는 피동 주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때, 두 문장의 연결을 쉽게 하려고 할 때에 선택된다.[3)]

한편 남기심, 고영근(1985)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어떤 행위나 동작이, 주어로 나타내어진 인물이나 사물이 제 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행동에 의해서 되는 행위를 수동이라 하고, 이러한 수동의 표현법을 문법적으로 수동법[4)]이라 한다.

즉, 수동이란 어떤 주체가 동작이나 상태의 변화를 남에 의해 입게 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나타내는 일종의 태로 볼 수 있으며, 그것은 주체의 동작이나 상태가 남에 의해 일어나는 것을 나타낸다.

---

3) 이익섭, 임홍빈 『국문법론』, (학연사, 1983), pp200~201.
4) 남기심, 고영근 『표준국어문법론』,(탑출판사,1985),p295.

한국어의 수동표현은 술어의 양태에 따라 동사의 수동형과 수동적인 의미를 가진 어휘구문으로 나타난다. 한국어의 수동표현은 원칙적으로 타동사를 대상으로 하는데, 대표적인 수동표현으로 「접미사피동 이, 히, 리, 기」, 「조동사피동 지다」, 「피동사 되다」등이 있다. 그러나 「접미사피동」만을 한국어의 대표적인 수동표현으로 인정한다는 입장과, 「접미사피동」과「조동사피동」을 인정하는 입장, 또 「접미사피동」, 「조동사피동」이외 「피동사」까지 인정하는 입장 등, 수동표현의 범위는 학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동사」중에서도 「되다」이외, 「당하다」류의 동사까지 인정하는 경우와, 형용사의 수동표현과 자발, 가능의 의미로 쓰여진 것 까지 수동의 범위로 본다는 입장도 있다.

접미사 피동 이, 히, 리, 기 는 동사에 연결될 때 동사의 語幹末音의 음운특성에 제약을 받는데, 그 특성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표 1> 접미사 피동 語幹末音의 음운특성

접미사 피동	語幹末音	분포예	분포수 (143)
이	모음, ㅎ, ㄲ, ㅍ,ㄼ	쓰다 → 쓰이다 꺾다 → 꺾이다 쌓다 → 쌓이다 덮다→ 덮이다 핥다→ 핥이다	53
히	ㄱ, ㅂ, ㄷ, ㅈ, ㄺ,ㄻ	막다→막히다 잡다→잡히다, 묻다→묻히다, 잊다→잊히다, 얽다→ 얽히다	33
리		밟다→밟히다	52

기	ㄹ, ㄷ, ㄶ ㄴ,ㅁ,ㅅ,ㅊ,ㄾ,ㄼ	갈다→갈리다, 들다→ 들리다 뚫다→ 뚫리다 안다→안기다 감다→ 감기다 벗다→ 벗기다 쫓다→쫓기다 끊다→끊기다 삶다→ 삶기다	5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동접미사는 타동사에만 한정되어 나타나며, 타동사라도 '붙이다' → '붙이 + 「이, 히, 리, 기」다' 와 같이 음운특성의 제약을 강하게 받으므로 수동접미사와 연결될 수 있는 타동사의 수는 그다지 많지 않다.

나. 한국어 수동표현의 특징

일본어의 수동표현은 조동사 「れる、れれる」로 한정된 단일 문법적 형태지만, 한국어의 수동표현은 동사의 수동형 및 수동적 의미를 가진 어휘 구문까지도 포함하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최현배(1989)는 피동을 "남의 힘을 입어 되는 움직임" 이라 정의하고 이해피동, 가능피동, 자연적피동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이 중 피해수동이 가장 순수하고 진정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5] 또한 피동사에 대해 "스스로 제힘으로 그 움직임을 하지 아니하고, 남의 힘을 입어서. 그 움직임을 하게 되는 것을 나타낸다" 라고 정의 하였다.

5) 최현배91989) 『우리말본』정음문화사. p.422

한국어의 수동표현은 수동, 자발, 가능의 기능이 일체되어 있는데 이는 문맥에 의해 판별할 수 있다.

먹다 (食べる) → 먹히다 (食べられる)

鼠が猫に食べられた.

쥐가 고양이에게 먹혔다.

今日は酒がよくのめる

오늘은 술이 잘 먹힌다.

이와 같이 한국어에서는 수동을 담당하는 형식이 일본어와의 대비를 전제로 하여 볼 때 자발이나 가능을 적극적으로 담당하고 있지는 않다.

다음은 접미사에 의한 수동문에 대한 설명이다. 일반적으로 문장은 주어와 목적어의 위치관계와 동사의 변화에 따라 능동문과 수동문으로 나뉜다. 능동문은 대체로 주어, 목적어의 순서이며, 수동문은 능동문에서 주어와 목적어가 위치를 바꿈과 동시에 일부 구성요소와 형태에 변화가 이루어지 문장이다. 예문을 통해 능동문과 수동문을 비교해 보겠다.

(1) 개가 고양이를 잡았다. (능동문)

(1)´ 고양이가 개에게 잡혔다. (수동문)

위 예문 (1)과 (1)´는 동일한 사항을 다른 두 가지 형식으로 나타낸 표현으로, 능동문과 수동문의 변환에 있어 동사의 형태적인 변환과 구문록적인 변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1)의 목적어가 (1)´의 주어에, (1)의 주어가 '~한테' 의 형태로 동작주 (행위자)를 나타냄과 동시에 동사의 어간에 수동접미사 '리'에 의해 변화가 나타난다.

기본적인 수동형의 형태를「접미사피동 이, 히, 리, 기」만 인정하는 우인혜(1997)는

이러한 수동문의 변형과정을 통하여 형성된다고 보는 수동문이 그 형태적, 구문론적인 특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건을 갖추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첫째, 수동문은 원칙적으로 타동사 구문의 능동형이 있어야 한다는 것, 둘째, 수동표현을 이루는 주된 요인 가운데 하나는 능동형으로 나타난 타동사가 수동 접미사 등의 개입으로 수동 기능의 동사를 형성한다는 것, 셋째, 변형 관계가 이루어지는 수동문은 그 기본적인 의미면에서 대응되는 능동문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것 등이다. [6)]

그러나 상기의 의미, 형태, 통어적 조건을 만족시키는 전형적인 수동 예문 (1)´이외에 다음과 같은 용례도 한국어 에서는 수동문으로 인정된다.

(2) 바람이 머리카락을 날린다.

(2)´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린다.

위 문장은 자동사 '날다'에 접미사 '리'가 연결된 형태로 자동사의 수동문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어의 수동형은 타동사어간에 접미사가 연결된 형태이므로 이런 경우는 예외적인 형태라 할 수 있다. 또한,

(3) 날씨가 풀리다.

등 수동의 의미에서 파생된 자동사화된 것 까지 수동의 범위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2. 일본어 수동문

6) 우인혜『우리말 피동연구』, (한국문화사, 1997), p45.

가. 수동문의 정의 및 분류

『日本文法大辞典』(1971)의 수동을 보자면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동사의 상(相)의 하나로 「受身」,「被動」,「所相」이라고 한다. 수동은 「어떤 사물이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의 영향을 받는다.」는 뜻을 나타낸다. 그리고 동사가 이런 상(相)을 취한 것을 「受動態」또는 「受動相」이라고 한다.

일본어의 수동문은 두 개의 명사가 동사와 관련되어, 하나는 동작주[7] 다른 하나는 피동작주[8]의 관계를 형성하고, 후자가 주어가 되고, 전자가 「に」、「 から」(한국어의 「에」,「 에게서」) 등의 조사와 함께 표현되는 문법현상을 말한다. 따라서 수동표현의 필요조건으로 동작주와 피동작주의 관계가 두 개의 명사간에 존재하고, 동사가 이들과 이어져 있기 때문에, 어휘적으로 수동의 의미가 있다고 해도 이러한 형태적, 통어적 관계가 없으면 수동표현으로 보기 어렵다. 나아가 수동표현은 능동표현과 대립하고, 주격을 축으로 한 격의 변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태'의 문제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다.

일본어의 '태'는 시제나 무드 (명령법, 가정법 등)과 같이 동사의 문법 범주의 하나이긴 하지만, 동사 자체의 형태적인 대립에 근거한 형태범주 임과 동시에, 문장의 관여자 중 무엇을 중심으로 말할 것인가라는 문장의 통어구조의 대립관계에 쟁점을 둔다는 것

---

7) 『일본어 교육사전』 (1982:181 일본어 교육학회저) 에 따르면, Agent, agentive의 번역어. 동작주, 동작주격 이라고도 한다. 동사와 형용사 같은 술어는, 그 의미를 보충하기 위해 몇 개의 명사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술어와 연결된 명사가, 그 술어에 대해 갖는 의미적인 관계는 몇 가지가 있는데, 동작주는 그 중 하나로, 동작을 행하는 이 가 된다.
8) patient의 번역어. 피동작주는, 술어와 연결된 명사구가 그 술어에 대해서 갖는 의미적인 관계 중 하나로, 「동작을 받는 이」를 말한다.

이 그 특징이다. 동사의 형태적인 측면 뿐 아니라 문장의 기능과 의미구조에 근거하여 통어론적인 측면과 상호관계의 체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겠다. 수동표현도, 동사를 수도형태로 바꾼다는 형태적 특징과, 능동표현의 목적어를 주어로 이동하고, 본래의 주어를 목적어로 이동 시키는 통어적 특징, 주어 입장의 관여자가 어떠한 동작, 작용을 받는 의미적 특징 때문에 '태'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태'의 한 형태의 수동문이란 동작, 작용의 주체가 다른 무언가에 동작, 작용을 가한 경우, 동작주 (행위자)를 주어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작을 받는 것을 주어로 하여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領木重幸(1972)는 다음과 같이 수동태의 동사의 용법을 제시 하였다.

『직접대상수동』

(4)二郎がさちこをなぐった。

(4)´さちこが二郎になぐられた。

(5)大関が横網を投げ飛ばした。

(5)´横網が大関に投げ飛ばされた。

『직접대상수동』은 능동문 동사가 가리키는 동작의 직접 대상 (~を)를 주어로 나타내는데, 이 수동은 동작의 직접 대상이 사람이나 그것에 준하는 것에 사용되는 것이 보통이다.[9)]

---

9) 領木도 다른 연구와 마찬가지로 서구어 표현의 영향으로부터 생명사가 주어로 쓰이는 수동문의 예를 들고 있다.

この地帯にもちかごろだんだん住宅がたてられるようになった。

『상대수동』

(6)のら犬が太郎にかみついた。

(6)´太郎がのら犬にかみつかれた。

(7)太郎は花子に算数を教えた。

(7)´花子は太郎に算数を教えられた。

(8)太郎は花子絶交した。

(8)´花子は太郎から絶交された。

『상대수동』은 능동문의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의 상대 (~に 또는 ~と)를 주어로 나타내는데, 이 수동은 원래의 동사가 동작의 상대를 요구하거나 필요로 하는 것이면 자동사, 타동사 모두 가능하다. 타동사의 경우 직접 대상은 수동문에 그대로 남는다.

일본어 동사의 수동형은 未然形에 조동사 (れる、られる) 가 연결되어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동사의 종류에 따라 활용 방법이 달라진다. 수동형을 만드는 방법은,

① 5단동사 - 어간이 자음으로 끝나는 동사

飲む → 飲まれる

② 1단동사 - 어간이 모음으로 끝나는 동사

見る → 見られる

走る → 走られる

③ 변격동사 - 불규칙한 동사

来る → 来られる

する → される

三上章는「れる、られる」와 동사와의 연결관계를 중심으로 수동이 성립되지 않는 동사를 「소동사 所動詞」, 성립되는 동사를 「능동사」로 분류하고, 능동사 중에서 「본래

의 수동」과 「迷惑의 수동」을 모두 성립시킬 수 있는 동사를 「타동사」, 그 이외의 동사를 「자동사」로 분류하였다.

(9) 私はあの人に救われた。
(10)大雨に降られた。
(11)その件は彼が責任を負った

이 세 가지 예문은 주어에 위치하는 명사가 타자에게 어떠한 움직임을 받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9)와 (10)은 수동문의 술어로 인정할 수 있는 형태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11)은 수동적 의미의 동사라고 말 할 수는 있지만 동사의 수동형은 아니다.
한편 수동표현인「れる、られる」의 형태를 가진 자동사로 '生まれる', '恵まれる' 가 있으나 이를 「이상동사」라고 하여 수동표현과 구분하고 있다.

나. 일본어 수동표현의 조건 및 분류

데라무라(寺村,1982) 는 수동태란 술어동사가 수동태의 형태를 갖추고, 통어적 특징을 지니며, 그 통어 구조사이에 의미적 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10] 이와 같이 동사의 의미적인 특성과 자,타동사의 관계는 수동문의 형식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에 따르면 어떠한 표현이 수동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술어동사의 형태적 측면, 통어적 측면, 의미적 측면 세 조건이 갖추어 져야 하는데, 그 조건은 아래와 같다.
① 형태적 조건 - 동사에 「れる、られる」가 접속되어야 한다.
② 통어적 조건 - 대응하는 능동문이 있어야 하며, 능동문의 동작이나 작용 대상인

10) 寺村秀夫、『日本語のシンタクスと意味』,(くろしお出版,1982), p213

대격보어가 수동문의 주어가 되어야 한다.

③ 의미적 조건 - 주어가 다른 것에 작용이나 영향을 받아야 한다.

<표 2> 수동문의 형식상의 대조

분류	일본어	한국어
1) 수동형의 표현 (1) 形	있음 동사 + れる、られる	있음 ① 수동접미사에 의한 표현법동사+수동접미사「이, 히, 리, 기」 ② 수동보조동사에 의한 표현법 타동사, 형용사 어간 + 「아(어)지다」 「하다」동사의 어간 + 「되다, 받다, 당하다」
(2) 수동형이 가능한 품사	자, 타동사 ① 동작, 작용을 받은 뜻을 표현할 때 ② 피해의 뜻을 표현할 때 ③ 동작주를 특별히 표현 할 필요가 없을 때	타동사, 형용사 ① 동작, 작용을 받은 뜻을 표현할 때 ② 피해의 뜻을 표현할 때 ③ 동작주를 특별히 표현 할 필요가 없을 때
(3) 용법 (4) 피해 등의 의미가 있을 때 그것을 결정하는 요소	① 자동사의 수동 ② 동사의 의미 ③ 문맥의 의미	① 동사의 의미 ② 문맥의 의미

2) 자동적 동사의 표현 (1) 形 (2) 나타내는 의미	있음 자,타 대응이 있는 자동사 자연적 당연의 결과	있음 자동사 자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의미
3)「~を受ける、~をもらう」의 표현	있음	있음
4) 피해의 표현 (사역 + 수동)	있음	없음

<표 3> 수동태의 의미상의 대조

분류	일본어	한국어
1) 직접수동형 (1) 形 (2) 능동문으로 전환 되는가 (3) 피해의 의미가 있는가	있음 AがB に~される から 가능 (AがBを~する) 있을 경우도 있고 없을 경우	있음 (수동접미사에 의한 표현) B가A 에게 + 受 다 ~로부터 가능 (A가 B를 t 다) 있을 경우도 있고 없을 경우

	도 있다.	도 있다.
2) 간접수동형 (1) 形 (2) 능동문으로 전환 되는가 (3) 피해의 의미가 있는가	있음 Bが Aに (を~される) 가능 AがBのCを~する AがBにCを~する 있을 경우도 있고 없을 경우도 있다	있음 B가 A에게 (C를 受 다) 가능 A가 B의 C를 t 다 A가 B에게 C를 t 다 있을 경우도 있고 없을 경우도 있다
3) 자동사의 수동 (1) 形 (2) 능동문으로 전환 되는가 (3) 피해의 의미가 있는가	있음 자동사 +れる 가능 항상 있다	없음

제2절 한일 양국어 수동문 비교

1. 형태적 특징

수동표현 이란 다른 것으로부터 동작이나 작용을 받는 표현을 말하며, 한국어의 수동표현은 수동 접미사와 보조 동사 '지다', '하다' 류 동사에 대치되는 '되다'형에 의한 방법에 따라 나타나는데 비해, 일본어의 수동은 동사의 활용 어미에 조동사 'れる、られる'를 붙여서 표현한다.

한일 양국어 모두 수동문은 능동문에 대해 그 주어가 교체하고, 술어동사가 수동화되어 동사에 수동을 나타내는 형태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수동형이 가능한 동

사는 한국어의 경우 타동사에 한정 되지만, 일본어는 자동사와 타동사가 모두가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진다.

하지만 이러한 형태적인 특징만을 가지고 수동형을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일본어의 조동사 'れる、られる'는 수동의 의미 이외 가능, 존경의 용법도 가지고 있다. 이들이 가진 용법 중에서 어떠한 표현을 수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는 술어동사가 수동의 형태를 갖추고 있고 주어에 오는 대상이 술어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이나 작용 등을 받는다고 하는 의미적인 면에서의 특징을 충족시켜야만 수동표현 이라고 볼 수 있다.

영어의 수동과 비교해 보면 영어에서의 수동의 개념은 순수하게 동작이 행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외부로부터 동작을 받는다는 뜻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일본어의 수동은 외부로부터 동작을 받거나, 외부의 동작, 작용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동작이 동작주체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본의(本意)로 삼고 있다. [11]

하지만 조동사 'れる、られる'의 용법 중 의미, 존경의 용법은 다른 표현으로 대용이 가능하지만, 수동의 기능을 나타낼 때 그것이 유일한 형식이기 때문에 수동이 가장 주요한 용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즉, 일본어에서는 형태론적으로 수동문을 구분하고, 한국어에서는 의미론과 형태론을 감안하여 수동문을 구분할 수밖에 없다.

2. 통어적 및 의미적 특징

한 문장에서 주어가 어떤 행동을 하는 행위자인지의 여부에 따라 술어동사의 표현이 달라지는데, 이는 한일 양국어의 구문론적 특징과 관련된 것으로, 여기에 차이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한일 양국 수동표현은 기능적인 면에서 많은 차이를 볼 수 있다.

한국어에서의 수동문은 행위를 하는 주체자 보다도 행위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춘 표현

11) 寺村秀夫(1982) 『日本語シンたクスと意味』,くろしお出版. p213

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어에서의 동사는 동작이나 방향성이 명료하게 나타난다. 한편 일본어의 수동문은 행위의 대상자가 사람인 경우가 많고, 그 행위의 결과를 받은 사람의 기분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어와 일본어의 수동표현과 능동표현의 구문론적 차이를 예를 들어 살펴보자.

(12) 太郎が次郎を殴った。→ 太郎가 次郎를 때렸다.
(12)´ 次郎が太郎に殴られた。→ 次郎가 太郎에게 맞았다.

이 예문(12)에서 한국어와 일본어 모두 능동문의 주어와 목적어가 바뀌어 (12)´의 수동문을 형성하고 있다. (12)에서의 일본어 술어동사 '殴る'는 형태적인 변화로 '殴られる'라는 수동태가 되는데 비해, 한국어에서는 '때리다'의 형태적인 변화로 수동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타동사 '맞았다'로 표현되고 있기는 하지만 구문론적으로는 차이가 없는 직접수동문 이라고 할 수 있다.「능동자와 수동자와 행위의 대상과의 상호관계에서 각종의 수동문형이 만들어 진다.」[12]고 하는데, 문형에 따라 나타내는 의미에 차이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한편 자동사의 수동형이나 타동사의 수동형은, 동작주의 작용, 행위가 피동작자의 의지와는 무관계로 행해지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 「자기」와 무관계로 행해지는 행위가 간접적으로 「자기」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의식하고, 결국 피동작자로 의식하는 점에 수동표현이 성립한다.

이처럼 자기와는 무관계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의 동작, 작용의 결과를 자기와 연결하여, 받는 사람의 입장에 둔다는 점이 수동형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이는 자동사에 붙이면 동작, 작용의 이해관계를 표현하고, 타동사에 붙이면 동작, 작용의 「간접 수동문」이 된다. 직접수동문에 직접 대응하는 능동문을 가지지 않는 간접수동문을 보자면 아래와 같은 예문을 들 수 있다.

---

12) 鈴木康之,『日本語文法基礎』, 三省堂, 1977, pp48.

(13) a. 今、ここに彼に来られると困る。

b. バスに行かれた。

c. 空き地に家を立てられて、子供たちは遊び場を失った。

위의 예문에서는 동작주의 행위나 작용이 그 영향을 받는 사람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행해지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a는 자동사의 피해의 수동형, b, c 는 타동사의 간접적인 수동형이다. 일본어에서는 자신과 무관하다고 생각되는 다른 사람의 동작이나 작용의 결과를 자신과 결부시켜, 화자가 당하는 시점에서 서술한 것이 일본어 간접수동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처럼 피해의 수동형이 자주 사용되어 독특한 뉘앙스를 지닌 표현으로 정착했다. 이것이 자동사에 의한 수동표현 일 때는 그 동작, 작용에 관련한 화자와의 이해관계를 나타내고, 타동사에 의한 수동표현 일 때는 동작, 작용의 간접 수동문이 된다. 이처럼 화자의 세세한 기분을 살필 수 있는 일본어의 수동표현은 「일본어다운 일본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어에서는 이러한 피해의 수동표현 형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 그대로의 표현이 자연스러운 느낌을 준다.

(14) a. 지금 여기에 그가 오면 곤란하다.

(今、ここに彼に来られると困る.)

b 버스가 갔다.

(バスに行かれた.)

c. 공터에 집이 들어서서 아이들은 놀 곳을 잃었다.

(空き地に家を立てられて、子供たちは遊び場を失った.)

괄호 안의 일본어는 한국어의 직역으로, 이와 같이 능동태 표현 밖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화자의 미묘한 감정은 살필 수 없게 된다. 만약 한국어의 표현에서 피해 의식

을 나타내려면 '버스가 가버려서 타지 못했다' 등의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받았다는 설명을 부가적으로 표현할 수 밖에 없다.

이는 일본어의 수동표현 중 [피해수동]에 해당하는데, 藤井正는 일본어의 피해수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영어 등 서구어의 수동태는 타동사의 목적어를 주어로 하는 것 (A)뿐이지만, 일본어에서는 A이외의 것도 존재한다. 이것을 B라고 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B에 속하는 것을 그것이 나타내는 이해(利害)가 간접적이라고 해서 『迷惑の受け身』라고 한다.

誰々が警察から罰された。(A)

誰々が警察から始末書をとられた。(B)

A와 B의 의미를 비교해 보자면 피해의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B에 속하는 것에도 『직접적인 이해(利害)』를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것이 존재한다.

결국 藤井正는 소유수동은 직접적인 이해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자동사문은 간접적인 이해 관계, 즉 피해수동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한국어와 일본어의 수동표현을 동작의 방향을 전제로 능동태와 수동태로 구분하는 것에는 많은 차이점이 발생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타동사의 경우 한국어에서도 '소유자와 소유물의 관계' 가 되면 일본어와 같이 주격조사 이외 목적격 조사를 취해 수동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

제3절 동작주와 조사와의 기능

일본어의 경우 동작주가 문장에 나타나지 않고,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동작주가 생략되는 조건을 보자면 전후의 문맥에서 동작주가 분명한 경우나 동작주를 특별히 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상태에 중점을 두기위해 동작주가 문제되지 않은 경우 등이 있다.

한일 양국어 모두 능동문에서 수동문으로 전환될 때 술어동사의 형태가 변하고, 그에 따라 격(格)의 이동이 일어난다. 격의 이동에 따라 조사도 바뀌게 되는데, 이 대격조사로는 「に」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に」의 위치에는「から」「によって」를 사용하여 나타낼 수 도 있다. 특히「に」는 장르와 문체를 불문하고 다양하게 이용 되는데, 동작주에 대한 동작주의 움직임이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 피동작주에게 변화를 가져오는 경우, 피해 수동표현의 경우, 자연현상의 경우, 인간의 감정이나 사고활동의 움직음일 나타내는 경우, 원인. 이유 및 수단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 등 의미용법과 사용조건에 있어서도 극히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조사는 동작주의 자질, 즉 유정물 (有情物: 사람이나 동물과 같이 감각이 있는 것)과 비정물 (非情物: 의사,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여기서 한일 양국어 수동문의 주어와 동작주의 자질에 따른 조사와 그에 대응하는 문장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표 4> 일본어 소설의 동작주의 조사와 사용률 (%)

	近世	近代	現代
に	93.5	77.1	76.0
のために	3.3	3.0	0
より	1.6	0.1	0
から	0.8	14.2	11.5
で	0	3.3	5.9
にて	0	0.1	0
を似て	0.8	0.07	0

によって	0	2.1	6.7

<표4> 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동작주의 조사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に」로 이는 다른 조사에 비해 사용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조사가 「から」로 이는 경우에 따라 다른 조사로 대치될 수 있다. 동작주의 주요조사 「に」,「から」,「によって」,「で」의 특징과 이에 대응하는 한국어를 문장을 통해 분석해 보기로 한다.

1. 동작주의 조사「に」

(15) a. 君が女に恋されようと思ったら、(『お目出たき人』:14)

자네가 여자에게 사랑받고자 한다면

b. すべてが何かの意志に支配されているような... (『幸福者』:74)

모든 것이 어떤 의지에 지배되고 있는 것 같은...

위의 예문을 보자면 '女' (여자)는 유정물이고, '何かの意志' (어떤 의지)는 비정물이지만 둘 다 조사 「に」를 사용하였다. 일본어에서 같은 조사 「に」를 사용하였어도 한국어에서는 그 대응의 동작주가 유정물일 경우에는 '~에게' 로 나타나고, 비정물일 경우에는 '~에'로 나타나게 된다.

또한 a에서처럼 「誉める」「好く」「憎む」등 인간의 감정적 움직임이나 「言う」「呼ぶ」등 사고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경우는 「から」로 바꿔 쓸 수 있다.

2. 동작주의 조사「から」

「から」는 동작주가 사람인 경우가 많고, 동작의 기점이나 출발지점의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의 태도나 감정, 감각, 언어활동 등 심적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과 수수표현에 관련된 것에 사용된다. 또한 「から」는 피해의 의미보다는 감정적인 움직임이나 사고활동 등이 동작주에서 나와 피동작주에 미친다는 의미로 사용되며, 대부분의 경우 「に」로 대신하여 쓸 수 있다.

이는 한국어 수동문 '~에게서', '~한테', '~로부터' 등에 대응하는데 그 양상을 대조하자면 다음과 같다.

(16) 田中は社長から認められた。

田中는 사장님에게 인정 받았다.

(17) 田中は屋上から突き落とされた。

田中는 옥상에서 밀려 떨어졌다.

(18) 田中は学校から呼び出された。

田中는 학교로부터 호출 당했다.

(16)의 문장에서는 동작주가 유정물이기 때문에 '~에게'로 표시되고 있는데 비해 (17)는 동작주가 생략되어 있고 기점을 나타내는 명사 '屋上'이 있기 때문에 '~에서'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16)의 '~에게'는 '~한테서' '~로부터' 로 대치되어 쓸 수 있으며, (18)의 '~로 부터'는 '~에서'로 대치되어 쓸 수 있다.

이처럼 일본어 수동문에서의 「から」와 그에 대응하는 한국어의 조사는 동작주의 기능과 기점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고, 그 기능은 (16)과 같이 유정물인 경우에는 동작주의 성격이 강하고, (17)와 같이 비점물인 경우에는 기점이나 출발지점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18)과 같이 学校, 警察, 会社 등 의인화 할 수 있는 명사에 한정하여 사람을 나타내는 「から」로 연결이 가능하다.

단, 「から」는 기점이나 출발지점을 나타내는 조사로, 「に」와 같이 밀착된 관계를 나

타내는 것이 아니므로, 간접적인 거리를 두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から」의 수동표현은, 동작주와 피동작주 사이의 직접적인 동작성 보다는, 어떤 동작이나 작용이 동작주의 기점에서 나와, 피동작주에게 도달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중개자를 경유하고도 그 행위는 성립될 수 있다.

3. 동작주의 조사「によって」

「によって」는 「に」와 「とる」의 합성조사로, 「よる」의 의미특성상 근거, 원인, 이유, 재료, 도구 등 동작주의 피동작주에 대한 직접적인 움직임을 나타내기 보다는 간접 관여자로서, 동작 자체보다 동작의 결과로서의 상태에 중점을 두는 경우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に」가 동작의 과정에 중점을 두는 점과 대조적이다.

특히 「によって」는 寺村이 말한 「創る」류의 동사 (書く、建てる등)과 「変える」류의 동사 (増える, 決める 등)이 많은데, 이는 동작주가 피동작주에게 직접적인 행위를 한다기 보다 동작주의 행위의 결과로 생겨난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によって」는 비정물의 수동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이는 비정물의 수동이 동작의 과정보다 그 결과로서의 상태에 중점을 둔 상태수동 이기 때문에 보통은 동작주가 나타나지 않지만, 동작주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관계표시의 의미가 강한 「によって」에 의해 표현된다.

「によって」는 한국어 표현 '~에 의해'로 대응되는데 그 용법을 분석하자면 다음과 같다.

(19) 政府によって予算案が修正された。

정부에 의해 예산이 수정되었다.

(20) 大統領は国民によって選ばれる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뽑힌다.

예문 (19)는 주어인 '예산안'이 비정물로 동작주의 작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느낄 수 없는 것 이므로 「に」로 대치될 수 없다. 따라서 '정부에 의해' (政府によって)는 생략해도 의미에는 큰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20)은 주어가 유정물 '국민'이고 동작주의 행위가 일반성 혹은 추상성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に」로 대치 될 수 있다.

(21)バニースタイルのウェイトレスによって無料で運ばれてくるコークやジュースでお腹をだましていた。(『若きのアメリカ』:46)

바니스타일의 웨이트리스에 의해 무료로 운반되어 오는 콜라와 주스로 배를 채웠다.

또한, 「によって」는 근대어 에서는 이른바 「원인, 이유 또는 수단, 방법」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았으나, 현대 일본어 에서는 (21)과 같이「동작주를 내세우는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졌다.

4. 동작주의 조사「で」

앞에서 열거한 동작주의 조사와 비교했을 때 「で」는 동작주로서의 의미가 가장 희박하여 동작주라기 보다는 원인이나 수단에 가까운 의미를 가진다. 게다가 동작주의 조사로서 인정되는지의 여부 또한 의문이 남는 사안이긴 하지만, 「に」나「によって」에 있어 대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で」의 기능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하겠다.

「で」는 현상을 나타내는 명사에 대해 그 행위가 주어에 변화를 가져오는 의미를 가진 경우에 쓰이며, 의미적으로는 원인, 이유, 수단, 근거를 나타낸다.

(22) 私は鋭い刃物でいきなり胸をつかれたような気がした。

나는 갑자기 날카로운 칼로 가슴을 찔린듯한 기분이 들었다.

(23) 古い建物がダイナマイトで爆破された。

오래된 건물이 다이너마이트로 폭파 되었다.

위 두 예문의 내용처럼 능동문으로 표현하는 경우 보다 수동문으로 표현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기 때문에 수동문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 (22), (23)의 「で」는 한국어 ~로, ~에 의해 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는 「によって」가 가진 '수단'의 의미와 겹치기 때문에「によって」 로도 대신하여 쓸 수 있다.

일본어에서는 동작주가 유정물, 비정물 모두에 조사 「に」,「から」,「によって」,「で」로 연결할 수 있으나, 한국어에서는 동작주가 유정물일 경우는 '~에게, ~한테' 가 사용되며 비정물일 경우 '~에'가 사용된다. 또한 '~에의해', '~로부터'는 유정물 비정물의 구분 없이 사용된다.

이처럼 한일 수동문에서 동작주와 동작주의 조사와의 관계는 주어와 동작주의 자질에 따라 대응하는 조사가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동작주의 주어는 의미적으로 연속되며, 조사를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할 수 있다.

제 4 절 한일 양국어 수동문의 대응관계

한일 양국어 모두 근대 이후 서구 언어의 번역에 의해 수동표현이 현저하게 증가하여, 서구적 수동표현을 꽤 사용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한국어와 일본어는 어순이 같고 동사와의 문법적 및 의미적인 관계를 나타낼 때 영어와 같이 전치사를 사용하지 않고 조사를 사용한다는 공통점이 있긴 하지만 일본어 수동문의 경우 수동형 조사로 인한 오용이 한국인 학습자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이 장에서는 한국어와 일본어의 수동문에 대응하는 표현을 알아보고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한일 양국어 근대소설을 토대로 분석하고자 한다.

1. 일본어 수동문에 대응하는 한국어 표현

한국어로 수동을 나타내는 문형형식은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접미사피동 이,히,리,기」,「조동사피동 지다」,「피동사 되다」등 다양하다. 근세소설에서는 「접미사피동 이,히,리,기」의 용례가 대부분으로, 「조동사피동 지다」와 「피동사 되다」의 예는 거의 없었으나, 근대 번역소설에서는 표 와 같이 「접미사피동 이,히,리,기」가 감소하고 「조동사피동 지다」와 「피동사 되다」가 늘어났다.

<표 5> 근대 한국어 번역소설에서 수동의 형식별 출현빈도

수동표현	개수	비율 (%)
이/ 피동	468	63.5
지다/ 피동	82	11.1
되다/ 피동	187	25.4

이는 소설과 마찬가지로 그대 이후 서구 언어의 영향으로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묘사가 증가함에 따라 수동의 의미가 약해지고, 대부분의 동사에 붙기 쉬운 「조동사 피동 지다」나 「피동사 되다」가 늘어나고, 어휘의 제약이 많고 수동의 의미가 강한 「접미사피동 이,히,리,기」가 줄었다고 할 수 있다. 또, 근대이후 일본어의 영향에 따라 「하다/ する」係 동사의 증가로 「하다」의 수동형인 「되다」가 눈에 띄게 많아진 것

도 근대 번역소설에서의 수동표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사전을 참조하여 한일 한어동사의 자타동사간의 異同에 관해서 알아보면 <표 6> 과 같다.[13)]

<표 6> 한일 한자동사의 자타동사간 異同 1

한국어	일본어 (する에 접속한 형태)	용례
「하다」가 접속하여 타동사로, 「되다」가 접속하여 자동사로 사용되는 경우	타동사로 대응하는 경우	開放, 開催, 掲載, 決定, 計劃, 公開, 交換, 構成, 拘束, 規律, 規定, 禁止, 記錄, 記載, 寄託, 代表, 登錄, 抹消, 發見, 放棄, 保障, 否定, 分類, 分離, 使用, 選定, 選出, 設立, 設置, 紹介, 送付, 受諾, 授與, 輸入, 承認, 施行, 實施, 要求, 要請, 運營, 委任, 任命, 任用, 貯藏, 適用, 展示, 訂正, 提供, 提案, 提出, 調節, 組織, 準備, 指名, 指定, 採用, 採擇, 撤回, 締結, 追加, 追放, 測定, 通知, 派遣, 評價, 表現, 限定, 解析, 協定, 型成, 確認
	자동사로 대응하는 경우	違反, 完治
	자타 兩用동사로 대응하는 경우	隔離, 終了, 破綻, 解決, 解消, 確定, 回復

<표 7> 한일 한어동사의 자타동사간 異同 2

13) 『민중엣센스 일한사전』, 사서전문민중서림
이희승편저 (1982),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한국어	일본어 (する에 접속한 형태)	용례
「되다」만 접속하여 자동사로 사용되는 경우	타동사로 대응하는 경우	洗練
	자동사로 대응하는 경우	孤立, 高調
	자타 兩用동사로 대응하는 경우	없음

한국어	일본어 (する에 접속한 형태)	용례
「하다」「되다」가 양쪽 다 자동사로 사용되는 경우	타동사로 대응하는 경우	없음
	자동사로 대응하는 경우	緊張, 崩壞, 成立, 安定, 合意合致
	자타 兩用동사로 대응하는 경우	없음

근대 번역소설에는 「접미사피동 이,히,리,기」에 의한 수동문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

는 작가와 작품의 성격을 감안 하더라도 근대까지는 한국어의 수동문은 「접미사피동 이,히,리,기」이외의 수동문이 거의 쓰이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대 소설에서는 「접미사피동 이,히,리,기」형 이외 「지다」의 수동문과「되다, 받다, 당하다」의 수동문의 출현빈도가 높아졌다. 이는 일본서적에는 한자어로 표시된 동사성 명사에 「される」를 접속한 형태의 수동문이 많고, 이에 대응하는 한국어 중 고유한 수동태를 찾기 어려워 「되다, 받다, 당하다」를 연결시켜 수동문을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또 다른 요인으로 「이,히,리,기」에 의한 수동문은 모든 동사에 대응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동문으로서 한계가 있다. 보조동사 「지다」에 의한 수동문 또한 근대 번역소설에 많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일반적으로 「지다」에 의한 수동문의 경우 원래는 능동으로만 쓰이는 동사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 「접미사피동 이,히,리,기」로 나타낼 수 없는 타동사에 보조동사 「지다」를 연결했다고 볼 수 있다.

2. 한일 번역소설 수동표현

한국어의 경우 근대 이전부터 유정물의 수동표현보다 비정물의 수동표현의 사용 비율이 높았고, 비정물의 수동표현도 자동사 대신에 사용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일본어에 비해 유형이 다양하지 않고 동작주가 처음부터 想定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이 특징이다.

근대 이후 소설과 마찬가지로 추상명사와 추상명사의 수동표현이 늘었고, 번역소설도 마찬가지로 비정물의 수동표현이 많았다. 이는 근세에 비정물의 수동표현에 비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고 말할 수 는 없지만 일본어의 수동표현을 무리하게 번역한 결과, 자동사의 수동표현이나 피해 수동표현, 수동표현의 명사형, 이중 수동표현 등 원래는 한국어에 없는 일본어적인 표현이 다수 발견되어, 한국어 수동표현이 일본어 수동표현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제5절 수동표현을 통해 본 한일양국의 의식구조

1. 주체의식과 대상의식

앞 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본어 수동문에 대응하는 한국어 표현은 수동문보다 능동문의 빈도가 높게 나타나 이를 통해 한국에서의 수동문보다 능동문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일본어는 문장의 주어나 소유물에 화자의 시점을 맞추는 특징이 있으나 한국어에서는 동작주의 행위나 상태, 작용 등에 시점을 맞추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한국어는 객관적인 시점에서 상황이나 상태를 서술하는 문장 형식을 가지는 반면 일본어는 한국어보다 주관적인 시점에서 상황이나 상태를 서술하는 문장형식을 가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시점의 차이가 한국어에서는 능동문으로 일본에서는 수동문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시점의 차이가 발생 하는가? 이는 한국인이 갖는 사고방식과 일본인인 갖는 사고방식이 다르고 이러한 다른 의식구조가 언어표현에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일 것이다. 모리타(森田,1995)는 일상생활에서 언어표현과 그 나라의 민족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그 나라의 언어가 그 나라 국민의 성격, 더 나아가서는 매사를 받아들이는 자세와 태도와 같은 일상 행동양식에 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언어의 시점이 그 나라의 민족성과 문화의 근원을 지탱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14]

---

14) 모리타 요시유키 (森田良行) 『日本語の視点』,(創拓社,1995),p140.

말하자면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그 나라가 가진 민족성과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 나라의 문화의 근저에 흐르는 의식구조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 의식구조가 언어표현에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다.

2. 남성문화와 여성문화

이렇게 문화가 가지는 성격을 남성문화와 여성문화로 구분하는데, 이는 인간이 남성, 여성으로 구분 되듯이 문화 역시 그와 같은 성격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다. 사회학자 게오르그 짐멜은 다음과 같이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이야기 하고 있다.

> 남성들은 분화된 성격 때문에 보다 독자적인 객관성이라는 측면에서 사물을 파악한다. 남성은 자신이 처한 관계로부터 자신의 전체 인격을 분리시킬 수 있으며, 모든 외적 요인들로부터 분리된 객관적인 방식으로 경험하는 반면, 여성은 일시적인 관계를 객관적으로 여길 수가 없다. 오히려 여성은 이 관계를 자신의 존재 전체와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경험한다.[15]

즉, 남성문화의 특징은 자기가 주체가 되어 상대에게 무엇인가를 주거나, 상대를 거느리려는 의식을 가진 반면 여성문화는 자기가 대상의 입장이 되어 상대에게 무엇인가를 받기를 원하고 상대를 따르고자 하는 의식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게오르그 짐멜의 이론으로 보자면 한국은 주체의식을 가진 남성문화 중심의 국가이고, 일본은 대상의식을 가진 여성문화 중심의 국가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의식구조의 차이는 언어표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

15) 게오르그 짐멜, 『여성문화와 남성문화』,(김희 역,1993,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p.111.

(24)派手なドレスがよく似合うし、ものごしが柔らかい。一度地下鉄の中で小学生にからかわれて、泣きやまなくなってしまって、気の小さな人だ。

화려한 드레스가 잘 어울리고, 몸짓도 유연하다. 한번은 전철 안에서 초등학생이 놀리면서 치마를 걷어 올려, 그만 엉엉 울어버리고 만 소심한 사람이다.

위 예문은 일본어 표현과 달리 한국어에 있어 주어의 불일치를 나타낸다. 일본어 예문에서는 앞 문장 에서 주어가 나타나 있지 않지만 문맥상으로 짐작해 보아 바로 뒤 문장에서 말한 '気の小さな人 (소심한 사람)'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 예문을 보면 앞 문장의 주어는 일본어 예문과 마찬가지로 생략된 '소심한 사람'인데 비해, 뒤 문장의 앞 문절에서 주어가 '초등학생'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즉 여기서 시점의 변화가 나타났다고 말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일본어에서는 뒤 문장이 앞 문장을 보충할 때 앞 문장의 주어와 뒤 문장의 주어를 일치시키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두 문장의 시점을 맞추고자 뒤 문장에는 필연적으로 수동문을 쓰게 된다. 수동문으로 인해 일본어에서는 초점이 주어 혹은 그 소유물에 맞춰지게 되지만 한국어의 경우 주어의 불일치에 의해 주어가 아닌 동작주의 행위나 상태 작용 등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표현이 된다. 화자의 시점을 행위자와 대상자 중 어느 쪽에 두는지에 따라 능동문과 수동문으로 구분되게 되는데 이는 곧 남성과 여성의 시점에 차이에 의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남성의 경향이 강한 한국의 주체의식으로 인해 한국어 표현에는 객관적인 시점의 능동문이, 여성의 경향이 강한 일본의 대상의식으로 인해 일본어 표현에서는 주관적인 시점의 수동문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말했듯이 한국어에서는 자동사 수동문이 성립하지 못한다. 일본어에 수동문이 쓰이는 이유에 대해 모리타(森田,2002)는 일본어가 기본은 어디까지나 자신을 기점에 두고 자신을 둘러쌓는 바깥 쪽 세상의 사물과 현상을 자기 시점에서 파악하며, 자기 시점을 발상의 중심에 두려고 하는 자세가 일본적인 표현을 낳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16]

또한 안증환(2002)은 한국과 일본의 문화를 '구상', '추상'의 상반되는 개념으로 하고, 양국이 갖는 자연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한국인과 일본인은 자연관과 대인관계에서 상반된 모습을 보이는데, 이 상반된 자연관과 대인관이 '구상'과 '추상'이라는 개념에 통합된다고 보는 것이다. 즉 한국인은 자연에는 순응하나 사람은 지배하려고 하고, 일본인은 거꾸로 사람에게는 순응하나 자연은 지배하려고 한다. 이것은 각각의 풍토와 역사가 다른 에에서 형성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17]

위와 같이 일본어에서 특징인 피해 수동문이 현저하게 나타나는 이유도 일본인이 자신의 시점을 중심으로 상대방과 주위 상황을 판단하는 의식구조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일본어 자동사문의 특징을 寺村(1982)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장에서는 일본어의 수동 중에 직접, 간접이란 2개의 수동을 인정하고, 그 구별의 근거를 구문적 특징에 두었다. 그것은 또한 그와 같이 인정된 간접수동이 항상 주격에 오는 명사가 가리키는 것 (보통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폐나 싫어하는 것, 곤란한 것, 즐겁지 않은 사실을 나타내는 데에 사용되는 것에 대해, 직접수동은 어떤 경우에도 사용된다고 하는 의미, 내지는 표현기능적 특징과 표리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인의 수동문에는 일본인이 갖는 수동적인 사고방식이 깔려있는데 다음의 예문은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진 전형적인 피해의 수동문이라고 할 수 있다.

---

16) (森田良行) 『日本語文法の發想』, (ひつじ書房,2002),pp.3~5.
17) 안증환, 『능동구조의 한국어와 피동구조의 일본어』,(제이엔씨,2002),pp.226~227.

(25) どこか知らない家に連れていかれたんです。両親はいなくて、知らない女の人がいました。その人 が私に外に出ちゃいけないって言いました。私は家に帰りたいって泣きました。だけど帰してもらえなかった。どうしても帰りたいって泣いって騒いだら、トイレに閉じ込められました。 (誰か,宮部みゆき, p 242)

(25)´어딘지 모르는 집에 데리고 갔습니다. 부모님은 계시지 않았고, 모르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밖에 나가면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집에 가고 싶다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돌려보내 주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가고 싶다고 울며 야단을 치니 화장실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25)에서 '連れていかれる' 라는 수동형이 (25)에서는 '데리고 가다' 라는 능동형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생략된 행위자에 '連れていかれる'(데리고 가다) 라는 행위의 영향을 받는 '나'에 초점이 맞춰짐과 동시에 피해의식이 포함되어져 있다. '데리고 가다'라는 동사 자체에는 피해의식이 느껴지지 않지만 '女の人が私を連れて行く'(여자가 나를 데리고 가다) 가 아닌 수동표현 (私は女の人に)連れていかれるを 사용함으로써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간'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가게 된' 이라는 피해의식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수동문 'トイレに閉じ込められました' 도 '화장실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라는 능동문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주어인 화자에게 화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행위자인 '女の人' (여자)에 의한 '閉じ込める'(가두다) 라는 행위의 형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서 주어가 행위자에 의해 간접적인 피해를 입는 피해의식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예문과 같은 피해 수동은 일본인들의 수동적인 사고방식에 의해 만들어진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인들이 이러한 수동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이유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문화론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일본이 여성문화 사회로 분류되어 주체의식이 아닌 대상의식을 갖기 쉬운 의식구조를 지녔기 때문이라기 할 수 있다.

제3장 結 論

본고에서는 한일 양국어의 수동문에 대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유사점과 상이점을 고찰해 보았다. 또 일본어의 수동문과 한국어의 수동문이 어떠한 대응관계를 가지는지에 관해서도 대조 분석하고,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 원인과 배경을 한일 양국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구조에 근거하여 찾고자 했다. 그를 위해 먼저 수동문을 정의하고 그의 특징 및 범위를 알아본 후 양국 수동문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며 어떤 형태로 대응하는지 조사 분석하였다.

한국어 수동문의 형식은 형태적으로 세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수동접미사 '이, 히, 리, 기'를 첨가하여 만든 접미사형, '아/ 어'에 보조동사 '지다'를 연결하여 만드는 형태의 '지다' 그리고 '하다' 동사의 '하다' 대신 '당하다, 받다, 되다' 등을 대치시키는 형태가 있다. 그런 반면 일본어 수동문의 경우 조동사 'れる、られる'를 동사에 붙여 나타내는 규칙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다.

예문을 통해 대조 분석한 결과 일본어의 수동문에 대해 한국어가 능동문으로 대응할 경우 그 문장이 가지는 동사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에 따라 서술 표현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한국어가 가지는 동사가 타동사일 경우 일본어의 표현에서는 행위자의 영향을 받는 대상에 초점이 맞춰지지만 한국어 표현에서는 영향을 받는 대상이 아닌 그 행위를 하는 행위자에게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 그리고 한국어의 동사가 자동사일 경우 일본어에서는 동작주의 행위를 강조하려는 수동문으로 나타내는데, 한국어의 경우는 이를 수동문이 아닌 능동문으로 표현하여 일반적 상황이나 상태를 서술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동작주와 조사의 관계를 살펴보면 일본어의 경우 동작주가 문장에 나타나지 않고, 생략되는 경우가 많고 동작주가 생략되는 조건을 보자면 전후의 문맥에서 동작주가 분명한 경우나 동작주를 특별히 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상태에 중점을 두기위해 동작주가 문제되지 않은 경우 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일 양국어 모두 능동문에서 수동문으로 전환될 때 술어동사의 형태가 변하고, 그에

따라 격(格)의 이동이 일어나며. 이에 따라 조사도 바뀌게 되는데, 이 대격조사로는「に」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に」의 위치에는「から」「によって」를 사용하여 나타낼 수 도 있다. 특히「に」는 장르와 문체를 불문하고 다양하게 이용 되어 여러 가지 용법으로 발견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 외의 조사를 크게 「に」,「によって」,「から」,「で」로 나누어 일본어 소설에서의 사용률을 조사 분석해 보았다.

각 조사가 가지는 특징으로는「に」는 동작주에 대한 동작주의 움직임이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 피동작주에게 변화를 가져오는 경우, 피해 수동표현의 경우, 자연현상의 경우, 인간의 감정이나 사고활동의 움직임일 나타내는 경우, 원인. 이유 및 수단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 등 의미용법과 사용조건에 있어서도 극히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는 점, 「から」는 동작주가 사람인 경우가 많고, 동작의 기점이나 출발지점의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의 태도나 감정, 감각, 언어활동 등 심적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과 수수표현에 관련된 것에 사용되며 피해의 의미보다는 감정적인 움직임이나 사고활동 등이 동작주에서 나와 피동작주에 미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대부분의 경우 「に」로 대신하여 쓸 수 있다는 점, 「によって」는 간접관여자로서, 동작 자체보다 동작의 결과로서의 상태에 중점을 두는 경우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비정물의 수동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이는 비정물의 수동이 동작의 과정보다 그 결과로서의 상태에 중점을 둔 상태수동 이기 때문에 보통은 동작주가 나타나지 않지만, 동작주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관계표시가 강한 「によって」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で」는 다른 조사 보다 동작주로서의 의미가 가장 희박하여 동작주라기 보다는 원인이나 수단에 가까운 의미를 가지며 현상을 나타내는 명사에 대해 그 행위가 주어에 변화를 가져오는 의미를 가진 경우에 쓰이며, 의미적으로는 원인, 이유, 수단, 근거를 나타낸다는 특징을 가진다.

그리고 언어 표현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 나라의 국민들의 의식구조를 통하여 한일 양국의 언어 표현의 차이를 고찰했다. 남성문화와 여성문화로 구분되는 문화론적 관점에서 한일 양국을 보자면 한국은 주체의식이 강한 남성문화의 성향을 가진 반면 일본은

대상의식의 여성문화의 성향이 짙은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양국 국민들의 의식구조의 차이가 결국 언어표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주체의식이 강한 한국어의 경우 동작주의 행위나 상태, 작용 등에 시점을 맞춰 객관적으로 상황을 서술하는 문장 형식을 가진 반면, 대상의식이 강한 일본어의 경우 문장의 주어나 소유물에 화자의 시점을 맞춰 주관적으로 상황을 서술하는 문장형식의 특징을 가지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일본어의 수동 표현과 한국어의 수동표현은 언어 형식 측면에서는 일부 유사성이 인정되지만, 수동의 적용범위, 수동문 사용 실태 등 세부적인 면에서는 적지 않은 차이점이 존재 한다. 언어표현의 차이를 단순한 형식구조의 차이가 아닌 양국의 국민들이 가지는 의식구조, 그리고 그 의식구조의 유사점과 상이점이 생겨난 원인과 배경 등을 연구함에 따라 양국 언어의 학습자들이 더욱 깊이 있는 언어표현을 학습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Ⅰ. 단행본

이성규.『일본어 수동문 연구의 전개』. 불이문화, 2001.

이성규.권선화『현대 일본어 문법연구 Ⅱ』. 시간의 물레, 2006.

미야베미유키(宮部みゆき),『誰か』. 文春文庫, 2003.

게오르그 짐멜. 『여성문화와 남성문화』. 김희 역 이화여자 대학교 출판부 , 1993.

이희승.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1961.

최현배. 『우리말본』. 정음문화사, 1929.

Ⅱ. 논 문

이시지마 가즈노리. “한일 양국어 수동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대학원, 2008.

윤호숙. “近代日本語における受身変表の現遷:韓国語との比較考察” 박사학위논문, 広島大学 1998.

김남수. “日韓 受動文의 対照考察”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1996.

이미지. “日韓 兩国語의 所有者 受動에 関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

유장옥, “日韓 兩国語의 受動文 対照研究”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1983